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개최한 어울림 한마당에서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영·호남 청소년 화합 불교가 이끈다

### (사)맑고향기롭게 부산, 어울림 한마당 열어

영·호남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에게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7월 13~14일 신라대학교 및 송도 일대에서 '제13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청소년 교류로 상호간 친밀도를 높이고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수 충무고와 부산 진여고 학생 240명이 참가했으며 △출범식 △친교의 시간 △장기자랑 △단합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또 부산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송도 해수욕장 관광 방문 및 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영호남 학생들이 참여해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아직 편견에 물들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문화 이질성을 쉽게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인 지역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무더위 수용생활, 청정생수로 극복을"

### 해남 대흥사, 해남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7월 17일 해남교도소에 생수 1만병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생수 1만병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해남지회(지회장 이병길)와 함께 혹서기에 30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시원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뜻을 같이 모았다.

오후 3시에 열린 전달식에는 월우 스님, 김재익 해남교도소장, 이병길 지회장을 비롯해 김홍길 교정교화위원 등 포교사단 교정교화위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흥사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일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친 수용자들이 시원한 청정생수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히 수용생활을 마치길 기원했다.

김재익 해남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준 대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용자들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더욱 힘쓰고, 나아가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학생들 좋은 환경서 공부하길"

### 수진 스님, 동명대에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수진 스님은 7월 17일 동명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수진 스님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란다"며 "모두가 각자 장소와 위치에 맞는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애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진 스님은 동명대 세계선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생에게 참선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영어로 만나는 대혜 종고의 〈서장〉

### 불전영어연구소, 〈A Manual of Zen〉 출판기념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종고 스님의 편지글 〈서장〉이 영어로 번역 출판됐다. 불전영어연구소 호법 스님과 공동 번역자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S.B Hettiaratchi) 박사는 번역서 〈A Manual of Zen〉을 부처님전에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불전영어연구소(소장 호법)는 7월 16일 불전영어연구소 법당에서 〈서장〉 영역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발원사 부설 불전영어연구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일군 결과인 〈서장〉 번역서를 부처님께 봉정하고, 관심 가져준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불전영어연구소는 참가 대중에게 책을 나누고 아울러 책 100부를 조계종 포교원에 기증해 세계에 널리 부처님 말씀을 알리겠다고 서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백평효 영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행사는 연구소와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해 번역자 호법 스님과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 박사의 소개 및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호법 스님은 불전영어연구소를 2016년 10월 부산 영도에 개설하고 경전과 불서를 영어로 번역해 한국불교가 세계와 소통하도록 앞장서고 있다. 스리랑카 팔리 불교대학, 태국 마하출라롱콘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 방문 교수를 맡고 있다.

**호법 스님과 해찌아라지 박사**
**국내 최초 〈서장〉 영어 번역**
**7월 16일 연구소 법당서 봉정**
**책 100부 조계종 포교원 기증**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S.B Hettiaratchi) 박사는 불전영어연구소 수석고문으로 유네스코 스페인·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다. 해찌아라지 박사는 마하출라롱콘대학에서 호법 스님을 지도한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호법 스님은 "〈서장〉 번역은 연구소 개설 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다. 간화선 불교를 전하기 위해선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간화선을 경험하고 참선,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며 "조계종단의 종도로서 큰스님의 은혜로 선을 익힌 결과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전영어연구소장 호법 스님이 부처님전에 〈서장〉 번역서 〈A Manual of Zen〉을 봉정하고 있다.

이후 부산대 김용환 교수의 서평과 격려사 및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의 법문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대혜 종고 선사의 〈서장〉은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글 65개를 모은 책으로 간화선의 교과서이자 지침서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불리며 직지인심, 즉 곧장 마음을 가리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번역됐으며 합리적 세계관을 가진 서양 영어권에는 설명이 어렵고 번역된 예가 드물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번역서 〈A Manual of Zen〉은 특별한 추가 설명보단 성실하게 번역해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편지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학문적 근거를 위한 색인 및 각주가 빠짐없이 추가돼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호법 스님은 "대혜 종고 스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원형을 담도록 노력했다. 진리의 세계를 깨달은 큰스님이셔서 간화선 공부 경험이 없는 분이 접하기엔 이해가 어렵다"며 "하지만 외국인들의 간화선 수행 관심이 늘어나 꼭 필요한 교재이며 간화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영어불전연구소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바르게 소개하는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번역서 〈A Manual of Zen〉은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 e-book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 문화포교 독려하는 '일일찻집'

### 부산불교교육대학 7월 12일
### 문화동아리 기금 마련코자

향기로운 차향과 다채로운 문화의 장으로 불교문화포교를 후원하고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7월 12일 문화동아리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부산불교교육대학 내 여래정사에서 개최했다. 일일찻집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활동하는 문화동아리 수화봉사단, 다도반, 환희지 합창단, 사물놀이패를 지원하고 봉사 및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일일찻집은 부산불교교육대학 내 여래정사 법당 증축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여래정사에서 개최한 일일찻집이기에 의미가 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문화동아리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개최됐다. 개원식에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개원식에는 학장 범혜 스님 및 화엄승가회 자관·효문·대각·태산 스님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후 판소리 공연 및 사물놀이, 환희지 합창단의 음성공양 무대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범혜 스님은 "매년 일일찻집을 열어 동아리 봉사 및 포교 활동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의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문화포교를 방침으로 더욱 다양한 기획을 구상하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문화포교를 위해 색다른 강의, 풍류대금반, 판소리반, 힐링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강의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입학식은 9월 6일 오후 7시이며 강의는 6개월간 진행된다.

범혜 스님은 "맑고 깊은 소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전통 한국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며 "또한 힐링 연극반에서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7월 11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는 부산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41년 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창립됐다. 범혜 스님은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 및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탈종공고

- 사찰명 : 법계사
- 주 지 : 혜강
- 주 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1길 7-10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 탈종공고

- 사찰명 : 소래정사
- 주 지 : 청화
- 주 소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상신 19-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